

11218 이세희

11~18.
● 5월 12일 나의 하루는...

자-112-8

오늘 밤에 내가 좋아하는 가수 사이니의 새 앨범이 나온다. 정규앨범이라서
나는 정말 기대를 했다. 회사에서 특히 정규 4집앨범을 잘 해준다는 소문이
있다.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된다. 18일에 나온다고 해서 나는 이직 먼곳
알고있었는데, 우연히 달력을 보니 17일이었다. 오늘 12시, 18일의 00시에
나오는것이다. 너무 너무 기대해서 손이 떨릴정도 이다.
앨범이 공개될때 동시에 사이니는 '종현의 푸른밤'이라는 보이는 라디오에
나온다. 다섯명이 한꺼번에 모두다 보이는 라디오는 몇년만인지 모르겠다.
나는 내 핸드폰으로 음원을 다운받고 듣는, 차트 순위를 올리위해 하는 스트리밍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얼마 핸드폰으로 보이는라디오를 봤다. 이거하라 저거하라
바빴지만 오랜만에 얼굴보니까 너무 좋았다. 1년 가까이만의 컴백이라
오랜만에 보는것같아 즐거웠다. 새벽 2시에 라디오가 끝나고 그제서야
싱곡을 들었다. 이번 앨범은 다른때와 다르게 퍼포먼스 위주가 아닌, 자신들의
특징적이고 개성적인 음악을 하는것 같았다. 팬의 입장이 아닌 객관적인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도 노래가 너무 좋았다. 이번앨범은 많이 흥했으면 좋겠다.
5월 25일이면 사이니가 벌써 일곱살이다. 나는 데뷔 2년차때부터 좋아했는데
벌써 7년째라니 믿기지가 않는다. 햇수로는 8년이다. 요즘 음악방송을 가면
몇몇배는 사이니가 선배이다. 옛날에는 제일 신인이라 인사하고 다니고 되게
꽃꽂았는데, 이제는 인정도 받았고, 선배가수이다. 나도 이가수의 팬인것이 자랑스럽다.
가끔 가수를 좋아하는것을 이해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단지 잘생겨서 좋아하는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곤 말해줄 수가.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항상 의지
하고 우울할때마다 노래를 듣고, 사진들 보며 기분이 좋아지면 좋겠다.